



### SG워너비 '가슴 뛰도록'·홍진영의 '사랑의 와이파이어' 등 히트 작곡가 조영수 지난해 '저작권 킹'

#### '콤카 저작권대상' 2관왕 ... 5년 연속 수입 1위

작곡가 조영수(40)가 지난해 대중음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KOMCA)에 따르면 조영수는 지난 16일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콤카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중음악 작곡·편곡 부문 저작권료 1위에 각각 올라 두 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작사 부문에는 강은경이 대상을 받았다.

또 클래식 부문은 김성균, 국악 부문은 황병기, 동요 부문은 정해순 씨가 저작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음저협은 "협회 회원 약 2만2000명 중 지난 한해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금액이 가장 높은 회원을 기준으로 부문별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관왕을 차지한 조영수는 지난해 SG워너비의 컴백 앨범 타이틀곡 '가슴 뛰도록'을 히트시켰고 홍진영의 '사랑의 와이파이어', 장윤정의 '사랑해요' 등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 그간 SG워너비의 '러리러'와 '내 사람', '가슴 뛰도록'을 비롯해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신화의 '브랜뉴 뉴', 오렌지카라멜의 '아이'와 '마법소녀'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해 '저작권 킹'으로 불렸다.

경력 25년의 작사가인 강은경은 플라의 '100일째 만남'을 비롯해 이승기, 박효신, DJ.DOC, 조성모, 홍진영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의 곡에 가사를 썼다.

한음저협은 이날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는 뜻에서 작곡가 고(故) 백영호 씨를 '콤카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으며 '콤카 아티스트상'은 그룹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김윤아가 받았다.



/연합뉴스

## 아이 다섯 재혼 가정의 코믹함 기대하세요

### KBS '아이가 다섯' 안재욱·소유진 '부모 역할 받아들일 때 됐죠'

자극적이고 개성성 없는 '막장'에 물리고 물린 시청자들을 위한 명랑한 TV 드라마가 이번 주말 찾아온다.

KBS 2TV '아이가 다섯'은 둘이 합쳐 아이가 다섯인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중심으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가족극이다.

5년 전 상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 이상태(안재욱 분)와 3년 전 이혼 후 삼남매를 떠맡은 안미정(소유진)이 한 의류회사에서 만나 두 번째 사랑을 싹 틔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연출자인 김정규 PD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KBS 주말극이고 특별한 건 없다"고 밝혔듯이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 50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드라마는 대신 코믹한 터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겠다며 버리고 있다.

한동안 뮤지컬 무대에서만 활동하다 4년 만에 새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안재욱(45)은 아빠 연기를

하는 데 대해 "이제 아이 아빠 역할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안재욱은 뮤지컬에 출연하며 최루현(36)과 백년 가약을 맺었고 최근 첫 딸도 얻었다.

"실제 제 나이와 배우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 아빠 역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극 중에서) 젊음을 놓아야 하는 시기를 늘 고민했어요. 가령 젊은 날에는 인턴 역할을 맡았는데, 나이가 들면 전문직에 캐스팅되는 거죠."(안재욱)

처가에 매년 아들 상태를 하루빨리 훑아보기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고픈 엄마 오미숙(박혜숙)과 사위를 아들같이 여기지만 사위가 새 여자를 만날까 노심초사하는 장모 박옥순(송옥숙)은 만났다 하면 상태를 두고 코믹한 신경전을 펼친다.

"상태는 한 가정을 이뤘다가 뜻하지 않게 아내를 잃었어요. 본가에 대한 책임감과 딸을 잃은 처가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는 가운데 새로운 여성(안미정)에 대한 감정까지 모호모호 피어나는 상황에 부닥친 상태의 감정 흐름이 쉽지가 않아요."(안재욱)

극 중 미정이 처한 현실도 '웃프다'(웃기면서 슬

프다). 미정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워 이혼했음에도 주변을 맴도는 전 남편 인철(권오중) 때문에 속앓이를 한다. 죄책감에 미정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쥐여줬다가 "자신이 미정 인생의 폭탄을 제거해줬음"을 뒤늦게 알게 된 미정 친구 강소영(왕빛나)도 복장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백주부' 아내로 더 유명해진 소유진은 KBS 2TV '예쁜 남자' 이후 2년 만에 돌아왔다.

'아이가 다섯' 기대 요인 중 하나는 tvN '로맨스가 필요해'와 KBS 2TV '연애의 발견' 등 인기 청춘 로맨스극을 쓴 정연정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는 점이다.

김 PD는 "정 작가가 로맨스뿐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잘 쓴다"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각각 상태 처제, 여동생으로 동창 사이인 장진주(임수향)-이연태(신혜선)와 상민-태민 형제의 사각 관계도 배치, 젊은 층들을 공략했다. 드라마는 4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한 '부탁해요, 엄마' 후속으로 20일 오후 7시55분에 첫 방송 된다.

### TV 프로그램

18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EBS1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티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당동맹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당동맹 유치원 2 08:30 두디디콩 08:40 당동맹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곤 14:30 캐니멀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맹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험기> 17:45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내 고향 남쪽바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8:45 스콜랜드-한자왕국 18:5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미의 보석, 볼리비아 탐험기> 21:30 한국기행 <내 고향 남쪽바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넷드워킹 특선 <필름> 55 안녕 우리말(재)	00 인간극장 스페셜 <죽자카라에서 온 편지 1~5부>	00 그린실버 고장이 좋다	00 닥터 365 05 이색직업 별난학교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10 뉴스특급	00 녹화중계 국회 대정부 질문 <비경제분야>		20 주말드라마 <엄마>(재)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건강 클리닉	
2	30 직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닥터 365	
3		00 2016 FIS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월드컵 스키 슬로프스타일 예선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월드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4	00 쾌도남마	00 오늘의 경제 10 특집다큐 <고려인, 우리말로 희망을 찾다>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구르기 탐구 생활	
5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00 번신자동차 토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일의 상>	
8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든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손자극 세상엔 이련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00 KBS 스페셜 볼슬레이, 0.01초의 승부 55 숄터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리멤버 아들의 전쟁>	
11	00 아내가 불났다 남편말상(재)	4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2016 금연전쟁	10 해피 투게더	10 위대한 유산 도시아이 시골살이	15 자기야	
12	4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재)	30 넷드워킹 문화특선 울faat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35 나이트 라인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8일 (음 1월 11일 庚午)

<b>子</b>	48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미리 챙겨 둘 필요는 없다. 72년생 내키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84년생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0, 80	<b>午</b>	42년생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54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66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애매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78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무리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8, 02
<b>丑</b>	49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흉흉하다. 61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3년생 번거롭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6, 85	<b>未</b>	43년생 생양의 기운으로 표리가 총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55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67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자. 79년생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할 것이니 잘 챙겨라. 행운의 숫자 : 76, 39
<b>寅</b>	50년생 기존의 틀을 재검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62년생 실태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방법이 보일 것이다. 74년생 생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86년생 진퇴양난으로써 고역이 가중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22, 15	<b>申</b>	44년생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천양지차이다. 56년생 상대의 사정부터 잘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8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다. 80년생 생산적인 관계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1, 77
<b>卯</b>	51년생 마음을 비우고 입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리라. 63년생 작은 이익을 꾀하려다가 명예마저 실추될 수 있다. 75년생 발전의 기운이 융숭해지는 형상이다. 87년생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6	<b>酉</b>	45년생 비슷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7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69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명을 만나게 된다. 81년생 단순 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3, 62
<b>辰</b>	40년생 성심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52년생 도처에 겁당하기 힘들겠다. 64년생 어떠한 충격에도 변하지 않는 주관을 가져라. 76년생 선택의 문제이다. 88년생 안경계도로 진입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행운의 숫자 : 57, 28	<b>戌</b>	46년생 객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58년생 미흡한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70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2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행운의 숫자 : 42, 86
<b>巳</b>	41년생 복합적인 형태이다. 53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65년생 입장의 차이를 벗어 놓고 흥분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77년생 일반적이야 한다. 89년생 의식하고 있던 중분히 피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50	<b>亥</b>	47년생 과감하게 진행해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이다. 59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71년생 시기에 적절할 조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83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벽난 하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1, 9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